

세계적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KIA 금주의 프로야구

8월 한때 포효하던 호랑이가 힘을 잃었다. 약속했던 서머리그 우승도 물 건너갔고, 탈꼴찌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을잔치 초 대장도 포기한 지 이미 오래다. 13일 현재 KIA는 39승59패1무(승률 0.398)로 선두 SK와 19.5게임차, 7위 현대와 6게임차 꼴찌다. 14일 막을 내리는 서머리그(9승 10패)도 최근 3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2위에서 4위로 추락했다.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1위가 확정된 삼성과는 4.5게임차다. 가을잔치인 포스트시즌 진출의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PO행 사실상 불가능 서머리그 4위로 추락

4강권에 들기 위해선 통상적으로 한 시즌 126경기 중 '매직승수'인 65승은 채워야 한다. 현재 27경기가 남은 KIA가 매직승수에 도달하려면 26승1패를 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시즌 초 우승 후보로도 점쳐졌던 KIA의 부진은 주전선수들의 잦은 부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1선발 김진우는 시즌 시작과 동시에 원인모를 컨트롤 난조로 2군에서 맹물다 잠깐 1군에 진입했으나, 결국 팀을 이탈해 임의탈퇴 선수가 됐다. 또 시즌 초 서튼과 에서튼 등 용병 두명이 부진을

호랑이 남은 목표는 탈꼴찌

두산·SK와 힘겨운 대결 예상

이유로 짐을 썼고, 이대진, 전병두, 이용규, 홍세완 등도 부상으로 시름시름 앓았다. 여기에 기대를 모았던 메이저리그 출신 강타자 최희섭도 국내 무대 데뷔 직후 옆구리 부상으로 2군으로 강등됐다. 그러나 서머리그 들어 부상선수들의 복귀와 팀 타선의 부활로 상승세를 타는 것 같다. 이번엔 시즌 중간에 영입한 용병 투수 스코비가 몸져 누웠다. 앞

친데 댈척으로 날뛰며 외변했다. 모처럼 지난 4.5일 전적 롯데전서 2연승을 달리며 상승모드로 돌아섰지만 이후 2경기 무승부로 위소됐고, 결국 상승 분위기는 사라졌다. 그리고는 또 3연패의 늪에 빠졌다. 올 시즌은 하늘마저도 돕지 않는 KIA다. 그래서 이전 목표를 수정했다. 일단 탈꼴찌가 목표다. 내년 시즌을 대비해 신인급 선수들도 다수 기용할 예정이다. KIA는 이번 주 잠실에서 2위 두산(14~16일)과 3연전, 광주에서 1위 SK(17~19일)와 만난다. 일단

◇프로야구 중간순위 (13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56	37	5	0.602	-	1패
2	두산	51	44	2	0.537	6.0	1패
3	삼성	50	44	3	0.532	6.5	2승
4	한화	47	44	2	0.516	8.0	1승
5	L G	45	44	5	0.506	9.0	2승
6	롯데	43	51	3	0.4574	13.5	1승
7	현대	42	50	1	0.4565	13.5	4패
8	KIA	39	59	1	0.398	19.5	3패

1, 2위 팀과의 6연전이 부담스럽다. 여기에 서머리그 우승 실패와 함께 4강 진출의 목표의식마저 사라진 게 더욱 큰 약점이다. 그러나 이용규, 김중국, 이현곤, 장성호, 최희섭으로 이어지는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위안이다. 한편 KIA는 14일 잠실 두산전 선발로 이범석(1패·방어율 4.06)을, 두산은 이승화(3승·방어율 1.67)를 예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덕현 오늘 세단뛰기 금 도전

(조선대)



한국 남자 10m 공기권총 단체 우승 여자 소프트볼팀, 일본 꺾고 2R 안착

한국 사격이 2007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권총 단체전에서 첫 금빛 총성을 울렸다. '한국 육상의 간판' 김덕현(조선대)은 세단뛰기에서 전체 1위로 결승에 진출, 금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밝혔다. 하길용(대구백화점), 이대명(한국체대), 이준희(경기도청)는 13일(이하 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후아막 국립사격장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1천738점을 합작해 러시아(1천724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김덕현(조선대)은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서 16m71cm를 뛰어 전체 1위로 결승에 올랐

다. 김덕현은 14일 오후 7시10분 결승전에 출전한다. 여자소프트볼팀은 타마사트대학교에서 열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강호 일본에 2-1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B조 1위(4승)로 8개팀이 겨루는 2라운드에 진출했다. 지난 12일에는 성민(25·경북체육회)이 남자 배영 100m B파이널(예선 기록 9~16위)가 겨루는 경기에서 55.58의 한국신기록으로 1위로 끝냈다. 성민은 이로써 2003년 4월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에 열린 코노코필립스스프링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55초86을 4년 만에 0.28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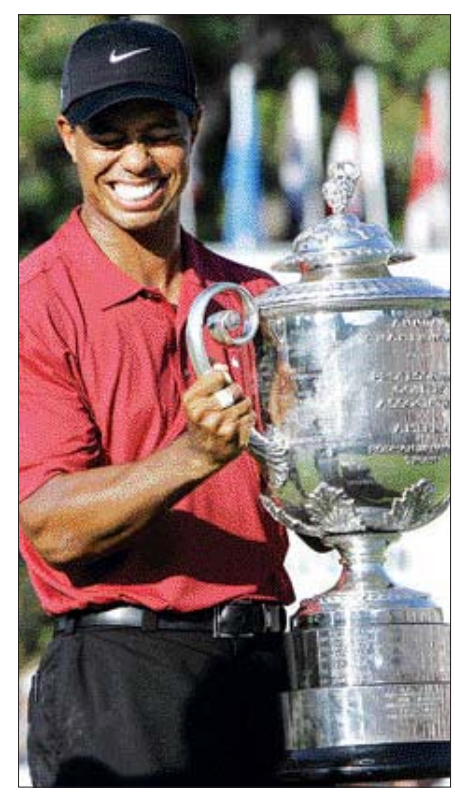
단축하면서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태권도에선 금빛사냥이 이어졌다. 임인목(21·성균관대)은 남자 플라이급 결승에서 수리쿰칸 테치(태국)를 5-1로 제압해 금메달을 땀, 김용민(22·상명대)도 남자 밴던급 결승에서 푼통 나차(태국)를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진희(21·조선대)는 여자 밴던급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해성(동국대), 이우정, 김상도(이상 경희대)는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천771점을 쏘 러시아(1천777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준웅(24·울산중구청)은 남자 기계체조 링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땀. 남자농구 대표팀은 16강전 첫 경기에서 종로 4초전 터진 박찬희의 3점포를 앞세워 강호 캐나다를 82-79로 눌렀고 여자소프트볼팀은 호주를 4-3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13번째 메이저 우승

최경주 공동 12위로 밀려 PGA 챔피언십 최종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07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우즈는 13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골프장(파70·7천131야드)에서 열린 제89회 PGA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1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8언더파 272타로 우디 오스틴(미국·6언더파 274타)과 에니 엘스(남아공·5언더파 275타)를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사진> 상금은 126만달러.

우즈는 이로써 시즌 다섯번째 우승과 함께 메이저대회 통산 열세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메이저대회 승수에서 우즈는 잭 니클러스(미국·18승)와 격차를 5로 좁혔다. 니클러스는 35세 때 메이저대회 13승을 올렸는데 이제 만 31세인 우즈가 같은 승수를 이루면서 사실상 니클러스를 추월했다. 전날 공동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던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는 1개에 그치고 보기 3개를 쏟아내 2오버파 282타로 마무리했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 우승을 꿈꿨던 최경주는 전날 공동 6위에서 공동 12위로 밀려나 내년을 기다려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프레지던트컵 출전...세계 정상급 입증

올해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사진)가 13일(한국시간)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이 끝나면서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 다음 달 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륙 대항 프레지던트컵대회 출전이 확정된 것이다. 이미 두차례 우승과 함께 세계랭킹 13위를 달리면서 일찌감치 대표선발이 예정되어 있었던 최경주이지만 PGA 챔피언십 종료와 함께 정식으로 출전이 확정된 것은 PGA 챔피언십 '톱 10' 진입이 무산된 아쉬움을 어느 정도 달래줄 수 있었다. 2년 마다 한번씩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은

미국 대표 선수 12명과 유럽을 제외한 세계 각국 연합팀 12명이 나흘 동안 포섬, 포볼, 싱글매치플레이 방식으로 겨뤘 승부를 가리는 대회. 미국-유럽 대항전인 라이더컵, 국가별 대항전인 월드컵골프대회와 함께 세계 3대 팀 대항전 가운데 하나로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라는 징표나 다름없다. 프레지던트컵에 출전하면 이듬해 월드클럽챔피언십(WGC) 시리즈 대회인 CA 챔피언십,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NEC 인비테이셔널 등 특급 이벤트에 자동 출전권을 받는 등 여러가지 특전이 따른다.

김병현 내일 등판 이적 후 첫승 재도전

이적 후 첫 승리에 재도전하는 김병현(28·애리조나 다이나모스)이 친정팀 애시스턴 'D-트레인' 돈트렐 윌리스(25·플로리다 말린스)와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애리조나는 13일(한국시간) 김병현이 15일 오전 8시55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플린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플로리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4일 결별했던 친정팀 플로리다를 상대로 이적 후 첫 승리와 함께 시즌 7승에 다시 도전하게 된 것이다. 김병현(6승5패·평균자책점 4.96)은 이적 후 처음 선발 출장했던 9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는 2.1이닝 5실점(4자책점)으로 부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킬 테면 쳐 보라”
승을 하며 B조 1위로 2라운드에 진출했다.

13일 태국 방콕 타마사트대학교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여자 소프트볼 한국-일본전에서 박수연이 역투하고 있다. 일본을 2-1로 누른 한국 여자 소프트볼 대표팀은 예선 4전 전승을 하며 B조 1위로 2라운드에 진출했다. /연합뉴스